

완성도 높은 책에 '한뎛' 모은다

한뎛 출판사 임명욱 사장

93년 6월 한뎛 출판사를 인수해 영업 1명 경리 1명 만으로 출판업을 시작한 임명욱씨(41)는 2년 6개월만에 편집부 7명, 영업 2명, 홍보실장 1명, 경리 1명 도합 12명으로 출판사 식구를 늘릴만큼 사세를 확장한 보기도 든 경우다. 특히 이 시기가 '단군 이래 최대'라는 출판의 불황기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출판사 경영능력은 탁월하다 할 만하다.

"대학 졸업 후 딱히 취직할 만한 곳도 없고 문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책을 끼고 살았던 터라 모교인 경희대 앞에 '지평'이라는 이름의 서점을 냈지요. 한 10년 서점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접하면서 저 나름으로 책을 보는 식견 같은 것이 생기더군요."

운명으로서의 출판

가장의 책임감이 점차 무거워져 '돈 안되는' 서점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 사업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망설임 없이 출판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싫은 일은 천금이 들어온다 해도 오래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을 잘 알기에 책과 관련된 지 않는 일은 '해보았자'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출판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니 그간의 모든 과정이 다 출판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선행적 응과정이라고나 할까요."

그의 출판에 대한 패기에 찬 의욕덕분이었는지 한뎛이 처음으로 펴낸 《공포특급》은 100만부가 팔려나가는 '당황스러운' 성공을 거두었고, 이어 나온 2권도 40만부가 넘는 판매부수를 기록했다.

치밀한 시장조사와 꼼꼼한 기획을 바탕으로 한 《공포특급》의 성공은 경쟁이 치열한 출판시장의 틈새를 노린 신생출판사의 전략의 성공으로도 읽힌다. 이는 출판이 문화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즐거움, 오락, 위안의 기능도 수행하는 서비스산업의 역할도 해내야 한다는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내가 사회에 내놓고 싶은 책은 반사회적이지 않으면서 재미있고 가벼운 책, 잘 팔리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책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것은 저 나름의 전략인 동시에 문화선도자로서의 출판인이 지니는 사명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품종 소량체제의 종합출판 지향

출판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임사장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영업전략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다. 그간 한뎛이 내놓은 책은 60여종이 넘는다. 한달 평균 4~5종은 어김없이 출간한 것이다. 한뎛의 도서목록을 채우고 있는 이들 책을 일별해보면, 《101가지 말과 행동》《내 딸들을 위하여》 같은 비소설류와, 《0빠진 영어》《만연 원년의 풋볼》《사랑과 다른 악마》같은 번역

"내가 사회에 내놓고 싶은 책은 반사회적이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책, 잘 팔리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것은 제 나름의 전략인 동시에 문화선도자로서 출판인이 지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완성도 높은 책을 위해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최대의 영업전략이지요."



소설, 《두 여자 이야기》《남자에 대한 한 보고서》 등 국내소설도 있다.

이밖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101가지 개념》이나 《마케팅 인사이트》 같은 사회과학 분야의 책과 《신비의 소금요법》이라는 건강서도 있다. 자연과학이나 기술분야도 빠지지 않는데 《현대물리학이 탐색하는 신의 마음》《쉽게 읽는 카오스》《멀티미디어에 관한 57가지 질문》도 독자들이 많이 찾는 책이다. 아동용 책도 출판한다. 《논술+요약 만점 길라잡이》 같은 학습용 책이 있는가 하면 총 7권으로 만들어진 《안데르센 동화선집》도 한뎛이 의욕적으로 출판한 책이다.

"80년대는 사회과학서적만 출판해도 버

틸 수 있는 시기였지만, 이제는 종합출판을 하지 않고는 저희같은 신생출판사가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만드는 사람들의 타임을 몇가지로 분류하면 대체로 "어떻게 하면 싸게 책을 만들까" "타협할 만한 적당한 선이 어딜까" "어떻게 하면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까"로 나누어진다. 그는 마지막 타협이다. 완성도 높은 책은 한뎛이 만드는 모든 책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그는 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의 최대의 영업전략이다.

—박남정 기자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

J. 헤센 지음/허재운 옮김/512면/20,000원/양장

종교 철학 분야의 고전으로서 종교 철학의 주요 문제들을 영미 철학의 분석적·자연주의적·실용주의적 입장이 아닌 유럽 철학의 정통적 입장 즉 현상학적 입장과 가치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해석학의 이해

E. 후프나겔 지음/강학순 옮김/224면/7,000원/서광철학강의 2

최근의 학문적 담론에서 자주 거론되기는 하지만 아직 그 개념이 모호하고 다의적인 '해석학'의 여러 입장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철학의 근본 토대로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제시한다.

설명과 이해

G.H. 폰 리히트 지음/배철영 옮김/256면/8,000원

철학의 전통적인 여러 주제들 가운데인 과정, 행위, 지향성, 실천적 추론, 목적론 등을 분석 철학의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논의를 하고 있다. 분석적 방법으로 철학하는 모습의 전형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게 해준다.

계몽 철학: 그 이론적 토대

J. 코퍼 지음/최인숙 옮김/224면/7,000원/서광철학강의 1

스스로를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전 사유로부터 근본적으로 탈피한 계몽 철학적 사유의 근본 특성을 다루고 있는 철학 입문서. 이론 철학적 측면에서 계몽 철학이 성립하는 근거 및 인식론적 과정을 전개해 나간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